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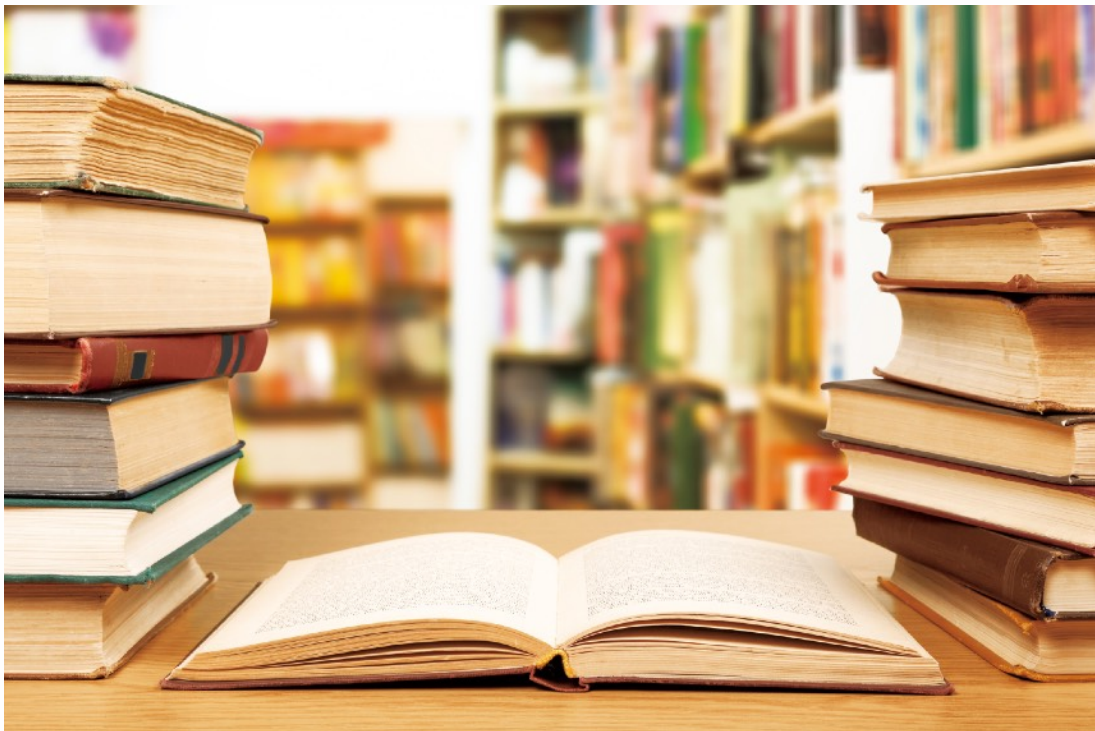
1.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량위기 실태]

기아로 인한 사망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아!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2022년 한국인의 새해 목표

2) 자영업자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기아로 인한 사망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아!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전에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식품을 구입할 수 있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엄청난 양의 음식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 이렇게 음식이 풍요롭다 못해 낭비되고 있는 시대에 지구촌 한켠에서는 최소한의 영양조차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한 국가는 충분한 양의 먹거리가 없을 뿐 아니라 양질의 먹거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사회·경제적 위기, 글로벌 공급망 악화 등으로 식량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국가에게 더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대한 관심 촉구의 일환으로 월드비전에서 <식량 쇼크: 코로나가 야기한 식량위기>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넘버즈 제129호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영양결핍 상태에 있으며, 7억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한다. 또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돼 충격을 주고있다.

배고픔과 굶주림을 잊고 사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모르는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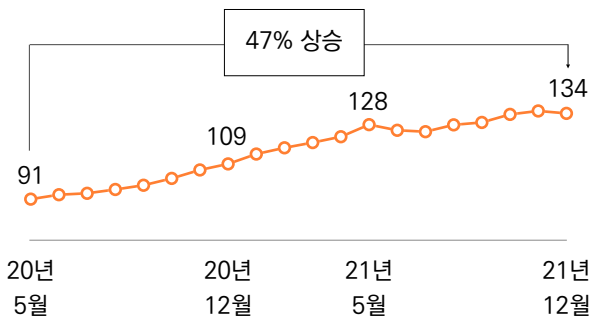


01

세계 식품 가격 지수, 코로나19 기간 동안 47% 상승!

- ▶ 최근 발표된 월드비전의 '코로나가 야기한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식품 가격 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는 2020년 5월 91이었는데, 2021년 12월에는 134까지 치솟아, 채 2년도 안돼 무려 47%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식품 가격 지수는 곡물류분 아니라 육류, 유제품, 식물성 기름, 설탕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식료품의 국제 시세를 반영해 산출하는 지수로 숫자가 높을수록 식품 가격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세계 식품 가격 지수 월별(2020.05~20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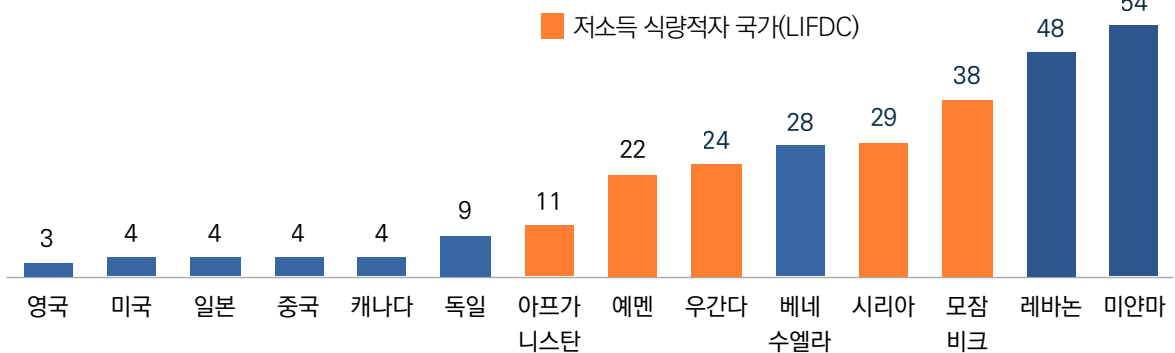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식품 가격 지수, (<https://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 월드비전 '식량 쇼크: 코로나가 야기한 식량위기 보고서, 2021.10.13.

◎ 가난한 국가의 식품 가격 상승률 더 높아!

- ▶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 물가가 올랐지만 가난한 국가에서는 그 타격이 더 크다. 음식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 식량적자 국가(LIFDCs**)는 2021년 음식 수입가격이 전년대비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식품가격 상승률도 영국, 미국, 일본 등이 4% 이하인 것과 대조적으로 우간다 24%, 시리아 29%, 모잠비크 38% 등 가난한 나라의 경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 ▶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세계 식량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림] 주요 국가별 식품 가격 상승률(2020년 2월 ~ 2021년 7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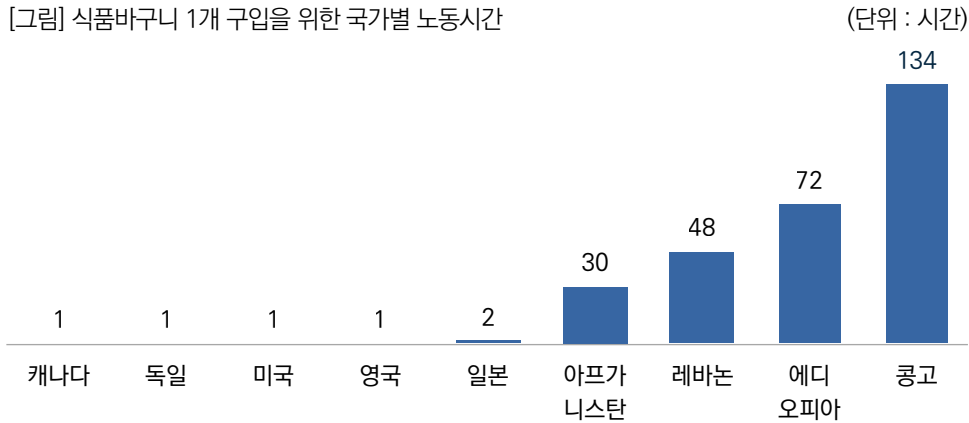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가별 가격변동, 2021.07, (<http://www.fao.org/datalab/website/web/food-prices>). 월드비전 '식량 쇼크: 코로나가 야기한 식량위기 보고서, 2021.10.13.

**LIFDC : FAO에서 지정한 '저소득 식량 적자 국가'(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로, 현재 47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음. (<https://www.fao.org/countryprofiles/lifdc/en/>)

◎ 10개 품목이 담긴 식품 바구니 1개를 구매하는데, 미국에서는 1시간, 콩코에서는 134시간의 노동 필요!

- ▶ 월드비전에서 분석한 '식품 바구니 수치'**를 보면, 10개의 일상적 물품을 담은 식품 바구니의 구입 가격을 노동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미국, 캐나다는 1시간의 노동 대가로 식품 바구니를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아프가니스탄은 30시간, 에디오피아는 72시간, 콩고는 134시간의 노동이 있어야만 식품 바구니를 구매할 수 있다.
- ▶ 저소득 식량 적자 국가(LIFDCs)의 경우, 식품의 가격 인상률도 더 높고, 구매도 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자료 출처 : 월드비전 '식량 쇼크: 코로나가 야기한 식량위기' 보고서, 2021.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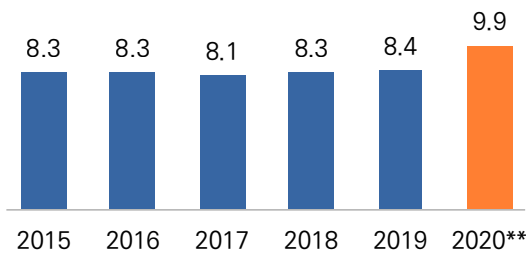
**'식품 바구니 수치'는 10가지 일반식품(생닭, 식용유, 옥수수(숙대), 달걀, 우유, 설탕, 쌀, 바나나, 토마토, 밀가루)의 가격과 1인당 국민총소득에 기반하여 산출됨.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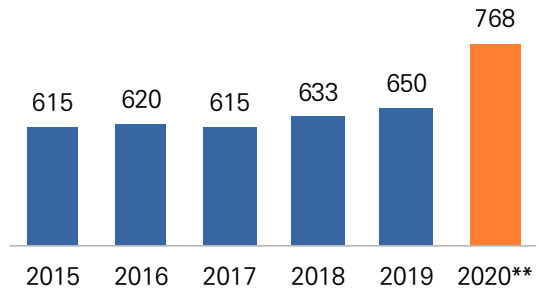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영양결핍 상태!

- ▶ 코로나19 이전, 2019년 세계 영양결핍 유병률은 8.4%로, 약 5년여 간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9.9%로, 1년만에 1.5%p가 상승했다.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영양결핍 상태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 ▶ 영양실조 인구 수도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세계 영양실조 인구 수가 이미 6억 5,000만 명에 달했던 것도 놀라운데, 2020년에는 7억 6,800만 명으로 비율로는 18%, 인구수로는 1억 명 이상이 늘었다.

[그림] 세계 영양결핍 유병률 (단위 : %)



[그림] 세계 영양실조 인구 수 (단위 : 백만 명)



*자료 출처 : FAO · IFAD, 유네스코 · WFP · WHO, '2021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2021.10. (<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cb447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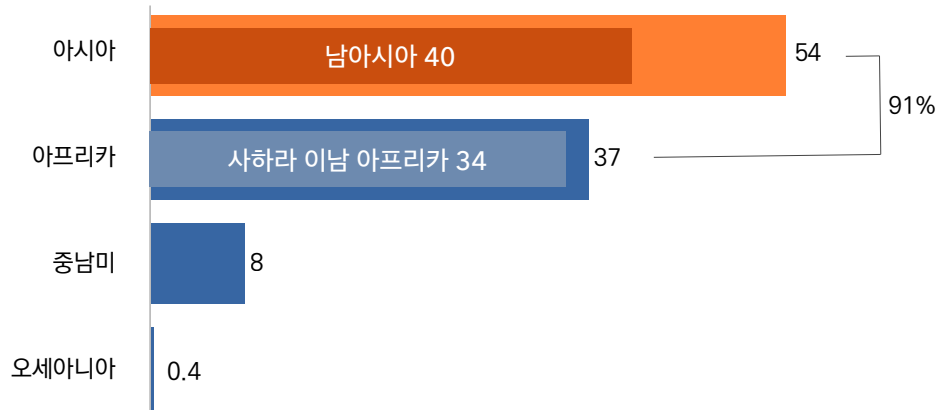
** 2020년 수치는 예상 범위의 중간값을 표기함

◎ 세계 영양실조의 3/4,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

- ▶ 세계 영양실조 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남아시아에 대부분이 몰려있고(전체의 40%),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가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의 34%).
- ▶ 즉, 전 세계 영양실조의 4분의 3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세계 영양실조 인구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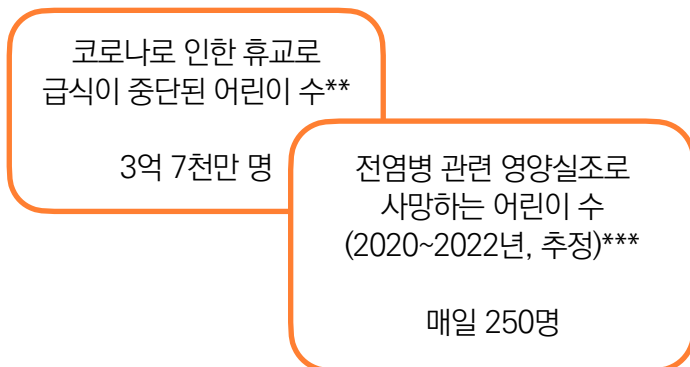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FAO · IFAD,유니세프 · WFP · WHO, '2021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2021.10. (<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cb447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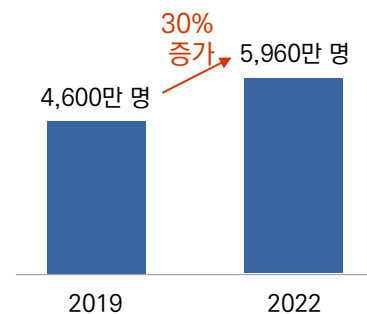
◎ 성장 쇠약 어린이, 2019~2022년 3년간 30% 증가!

- ▶ 굶주림은 어린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어린 아이들은 빠르게 자라는 신체와 뇌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므로 짧은 기간 굶주림에도 취약하다. 2011년 소말리아 기근동안 26만 명이 사망했는데 절반 이상이 5세 미만의 어린이였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 ▶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어린이가 세계적으로 3억 7천만 명에 달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염병 관련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매일 25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키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쇠약 어린이도 3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가 어린이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림] 코로나19가 세계 어린이에게 미치는 식량 위기



[그림] 성장 쇠약(키에 비해 몸무게가 적음) 세계 어린이 수(추정)***



*자료 출처 : 월드비전 '식량 쇼크: 코로나가 야기한 식량위기' 보고서, 2021.10.13.

**유니세프 · WFP(세계식량계획) '코로나19: 교실보다 더 많은 것을 잃다-학교 폐쇄가 어린이 영양에 미치는 영향', 2021.01. (https://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COVID-19_Missing_More_Than_a_Classroom_The_impact_of_school_closures_on_childrens_nutrition.pdf)

***Osendarp, S., Akuoku, J.K., Black, R.E. 외 '코로나19 위기의 저소득 · 중간국가의 모자 및 아동 영양부족 및 아동 사망률 악화', 2021.07.19. (<https://www.nature.com/articles/s43016-021-00319-4>)

03

기아로 인한 사망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아!

- ▶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의 연구에 따르면, 기아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1분당 11명꼴로 추정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분당 7명으로, 음식 부족이 코로나보다 더 많은 죽음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림] 1분당 사망자 수(코로나19 사망자 vs 음식 부족 사망자)



*자료 출처 : 월드비전 '식량 쇼크: 코로나가 야기한 식량위기' 보고서, 2021.10.13.

** 존스홉킨스대학(JHU) 시스템과학 및 엔지니어링센터(CSSE)의 코로나19 대시보드(<https://www.arcgis.com/apps/dashboards/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의 2021년 8월 8일부터 2021년 8월 14일까지 확인된 총 코로나19 사망자 수 68,141명을 분당 명수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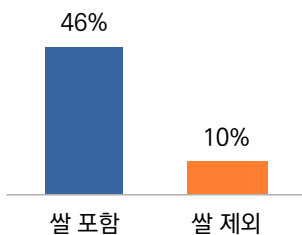
*** 옥스팜 '기아 바이러스 증식: 분쟁, 코로나19 그리고 기후가 세계 기아를 가속화하는 치명적 방법', 2021.07.09

04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쌀 제외) 10%에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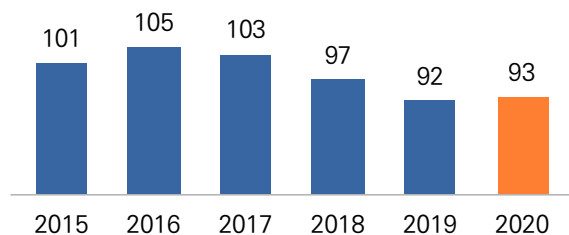
- ▶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그나마 쌀의 자급률이 그동안 100% 이상을 웃돌며 국내 식량 자급 기반을 떠받쳤지만, 2015년 101%에서 2018년 100% 아래로 떨어져 2020년에는 93%를 기록했다. 식량 자급률은 쌀 포함 46%, 쌀을 제외하면 10%에 그친다.
- ▶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가 불안정해지고 식품 무역과 수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림] 한국의 2020년 식량 자급률



[그림] 한국 쌀 자급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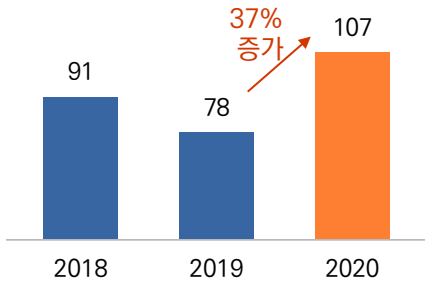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이데일리 '쌀 자급률 100% 무너져... '식량 자급기반 유지해야'', 2021.10.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79606629214888&mediaCodeNo=257&OutLnkChk=Y>)

◎ 국내 영양실조 사망자, 적은 수이지만 1년 새 37% 증가!

- ▶ 국내 영양실조 사망자는 2019년 78명에서 2020년 107명으로 1년 새 무려 37%나 증가했다. 이는 고령층과 1인 가구 증가에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시설 중단 등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 ▶ 영양실조 사망자 증가만으로 식량 부족과 식량 위기 상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영양실조가 늘어난다는 것은 식량 부족에 놓인 국민이 늘어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국내 영양실조 사망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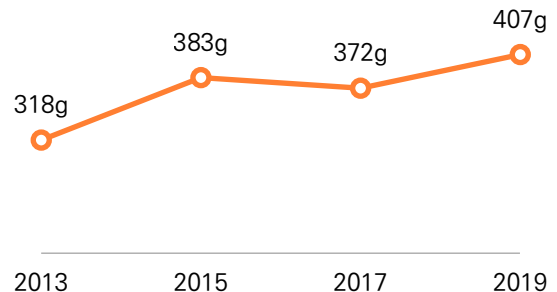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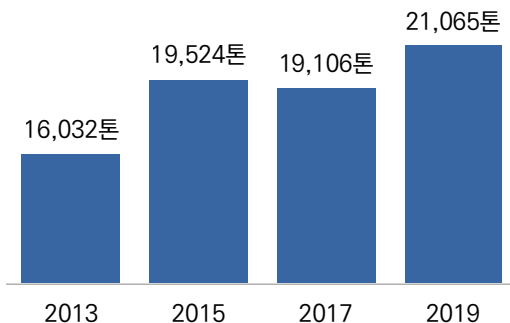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18-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3)

05

국내 식품 폐기물, 전 국민이 매일 밥 두 공기씩 버리고 있는 셈!

- ▶ 전 세계적으로 10명 당 1명 꼴로 기아에 시달리고, 국내 영양실조 사망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하루 2만 톤이 넘는 식품 관련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연간 730만 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지난 6년간 31%가 증가한 수치이다.
- ▶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도 하루 407g에 달한다. 전 국민이 매일 밥 두 공기씩을 버리고 있는 셈이다.
- ▶ 지구의 한 쪽에서는 식량 위기로 굶어가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 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모두가 각성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국내 식품 총폐기물 발생 추이 (단위: 1일 기준) [그림] 1인당 식품 총폐기물 발생 추이 (단위: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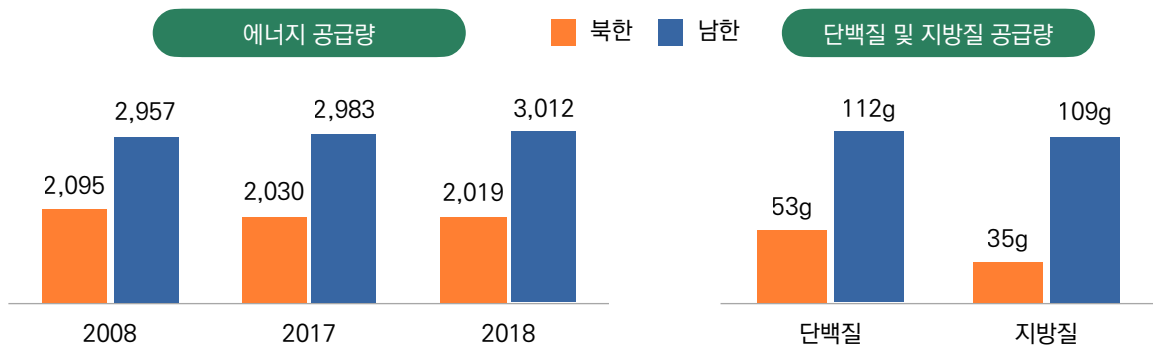
*자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2021.11.30.

06

2018년 기준, 북한 1인 1일당 단백질/지방질 공급량, 남한의 절반 수준!

- ▶ 이번에는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알아 보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북한 역시 저소득 식량적자 국가인데, 2018년 북한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량은 2,019kcal로 2017년 보다 0.5% 감소하여 남한(3,012kcal)의 67% 수준이었다(통계청, 2021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 또 2018년 북한 1인 1일당 단백질 및 지방질 공급량은 전년 대비 각각 0.7%, 0.3% 감소한 54g, 35g으로 남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인/1일당 영양공급량 (2018년 기준, kcal)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1.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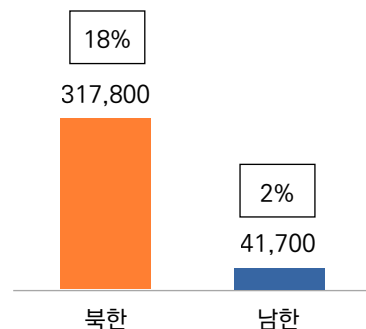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북한 2.3개월 치 식량 부족 추정!

-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2021년 12월 발표한 '긴급 식량불안정 조기 경보: 2021년 8~11월 전망'에 따르면 북한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44개국에 포함시켰는데, 북한 국민 대다수가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록했다.
- ▶ FAO는 북한의 2021년 식량 부족량을 85만 톤으로 추정했다. 지난 5년 평균 연간 106만 톤의 추가 식량 수입이 필요하나, 실제 식량 수입량은 21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량 부족분은 약 85만 톤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2.3개월 치 식량에 해당된다.
- ▶ 또 유엔아동기금(UNICEF)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이 공동 작성한 '2021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의 18%(317,800명)가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는 남한의 2%(41,700명)와 비교했을 때 9배 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그림] 북한 식량 실태(2020~2021년)

구분	물량	비고
국내 식량 총 수요량(연간) (a)	895만 톤	
국내 식량 총 생산량(연간) (b)	489만 톤	
수입 필요량	106만 톤	(a-b)
실제 수입량 (c)	21만 톤	
부족분	85만 톤	(a-b-c)

[그림] 북한 vs 남한 발육부진 어린이 수 비교 (5세 미만 기준, 2020년, 명)**



*자료 출처 : FAO,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021(11~10), 2021.06.14., p.7

**자료 출처 : unicef,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Bank Group, 'Levels and trends in child malnutrition', 2021. 05), p.19, p.23



왼쪽에서 보이는 사진은 아프리카에서 먹지를 못해서 뼈만 남은 아기의 사진이다. 우리는 책이나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심심치 않

게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의 수가 약 7억 6천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4쪽)은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는 과다 영양섭취로 인해서 비만과 각종 성인병에 시달려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1분당 11명씩이나 음식부족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5쪽)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는 그의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198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를 빌려와서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당시 인구의 2배인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먹여 살린다는 의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00~2,700칼로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아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전쟁이다. 장 지글러는 1970년에서 1999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만 43차례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들 전쟁은 심각한 기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전쟁의 이유는 복잡하지만 인종간의 갈등, 다이아몬드나 금, 석유와 같은 토착 자원을 독점하고픈 욕망 등, 때로는 국제적인 금융 그룹이나 국제기업 등의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전쟁을 부추기도 하는데 이들 전쟁의 희생양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이다.

또 다른 원인은 이상 기후이다. 태풍, 가뭄 등 이상 기후가 빈발하면서 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졌다. 장 지글러는 1991년 통계에 따르면 36억 헥타르의 땅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 육지의 4분의 1정도이고, 경작이 가능

한 건조지대의 약 70퍼센트나 된다. 사막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매년 약 600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경작이 가능한 건조지역의 71퍼센트, 약 14억 헥타르에 걸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약 10억의 인구가 가까운 장래에 사막화의 위협에 직면할 거라고 예측된다. 그 외에도 장 지글러는 곡물가격 조작, 국제 기구의 자금난 등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 식품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로 인해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었다. 코로나19는 농작물 원료 구매, 생산, 유통 체계를 위축시켰으며 그로 인해서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서 국제 식품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한가? 우선은 기아 문제가 나와 내주변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므로 무관심하기 쉽지만 남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 기독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신앙 위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보다 더 높은 인류애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자격과 책임이 있다. 둘째는 식량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환경 문제에서 오는 것이므로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개인과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구호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복음도 전했지만 사랑의 정신으로 고아들을 거둬들이고 병원을 지었던 것처럼 인류애 구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도 선교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우선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구호 기구에 후원하는 것도 구호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을 돕는 실천에 나설 때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1.[2022년 한국인의 새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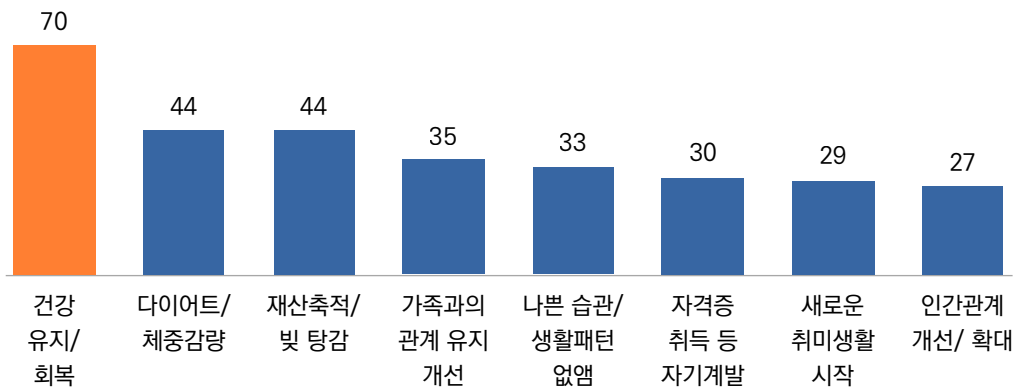
2.[자영업자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



2022년 개인 목표, 10명 중 7명은 '건강' 꿈아

- ▶ 매년 새해를 맞이하며 사람들마다 작은 목표(소망) 하나쯤은 품게 마련이다.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2022년 한 해 목표로 우리국민 10명 중 7명 꼴인 70%가 '건강 유지·회복'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다이어트·체중감량' 44%, '재산축적·빚 탕감' 44%로 공동 2위,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 35%, '나쁜 습관·생활 패턴 없앰' 33% 등의 순이었다. 우리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2022년 개인 목표 (중복응답, 상위 8위,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여론속의 여론), '새해맞이와 2022년 계획', 2022.01.12.(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2022.01.07~10. 웹조사)

◎ 20대는 학업·업무, 30대는 경제문제, 40대 이후는 건강이 1순위 목표!

- ▶ 연령별로 20~30대와 40대 이상의 한 해 목표 차이가 확연한 것을 볼 수 있다. 20대의 경우 학업 관련 성과(62%) 및 자기계발(58%)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30대에서는 66%가 재산축적·빚 탕감이라 답해 경제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 ▶ 20대에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학업/업무 성과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30대부터는 가열차게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의 부양 및 본인의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관심이 옮겨지는 것이다.
- ▶ 40대 이후부터는 1순위가 모두 '건강'이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9명 가까이(86%)가 '건강 유지·회복'을 꼽았다.
- ▶ 60세 이상에서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이라는 응답이 2순위(50%)를 차지했는데, 이는 20대 21%, 30대 26%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림] 2022년 연령별 개인목표 순위(중복응답, 상위 5위)**

연령	1위	2위	3위	4위	5위
20대	학업·업무관련 성과(62%)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58%)	다이어트·체중감량 (51%)	건강유지·회복 (49%)	새로운 취미활동 시작(37%)
30대	재산 축적, 빚 탕감 (66%)	건강유지·회복 (59%)	다이어트·체중감량 (49%)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39%)	내집 마련·더 좋은 집으로 이사(36%)
40대	건강유지·회복 (69%)	재산 축적, 빚 탕감 (56%)	다이어트·체중감량 (47%)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32%)	나쁜 습관·생활 패턴 없앴(31%)
50대	건강유지·회복 (75%)	다이어트·체중감량 (44%)	재산 축적, 빚 탕감 (43%)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35%)	나쁜 습관·생활 패턴 없앴 새로운 취미활동 시작(27%)
60대	건강유지·회복 (86%)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50%)	나쁜 습관·생활 패턴 없앴(38%)	다이어트·체중감량 (36%)	인간관계 개선·확대(34%)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여론속의 여론), '새해맞이와 2022년 계획', 2022.01.12.(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2022.01.07~10. 웹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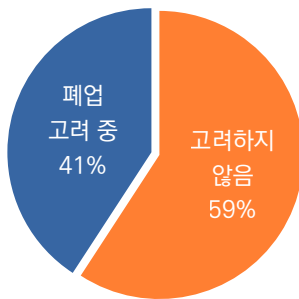
**연령별 순위는 전체 응답자수(1,000명)와 달리 표본수가 적어지므로 해석시 유의할 것.



코로나 2년, 자영업자 10명 중 4명 폐업 고려!

-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자영업자 대상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1%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감소' 28%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 ▶ 반면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그 이유로 '특별한 대안이 없음'이 2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폐업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을 짐작케하는 응답이다.

[그림] 자영업자 폐업 고려 여부



[표] 폐업 고려 이유, 고려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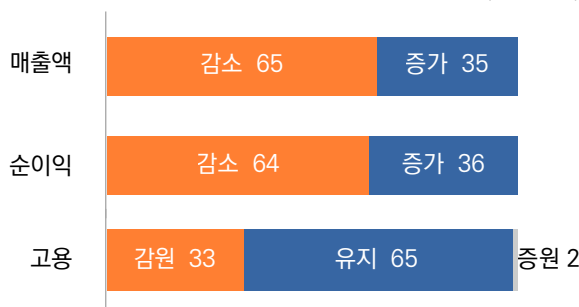
폐업 고려 이유 (중복응답, 상위 4위)		폐업 고려하지 않는 이유 (중복응답, 상위 4위)	
영업실적 감소	28%	특별한 대안 없음	24%
자금 부담	18%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 기대	20%
임차료·인건비 부담	18%	영업은 부진하나 자금사정 평이	14%
낮은 경기회복 가능성	17%	신규사업 진출 리스크	13%

*자료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영업자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설문조사', 2021.01.17.(자영업자 500명, 2022.01.05.-09, 온라인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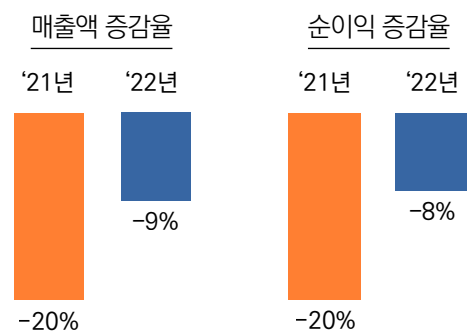
◎ 2022년 매출액·순이익 전망, 3명 중 2명은 비관적!

- ▶ 2022년 매출 예상에 대해서는 올해 역시 매출·순익 감소 등 영업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자영업자의 3명 중 2명꼴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줄어들고(65%), 순이익도 감소할 것(64%)이라고 응답했다.
- ▶ 자영업자들이 예상하는 매출액 증감을 살펴보면, 올해 2022년 예상 매출액은 작년 대비 9% 감소하고, 순이익은 8% 감소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이는 2021년보다 매출액/순이익 감소폭이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로 지속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 ▶ 자영업자들은 올해 고용인원에 대해서도 '감원' 33%, '증원' 2%로 전체적으로 감원계획이 증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전년 대비 2022년 자영업의 매출액 순이익, 고용전망 (단위 : %)



[그림] 2021~2022 자영업 실적 증감 평균**



*자료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영업자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설문조사 결과', 2021.01.17.(자영업자 500명, 2022.01.05-09, 온라인조사)
** 2021년은 2020년 대비 실적증감, 2022년은 2021년 실적 증감 전망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80호\(2022년 1월 3주\)](#)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 62호\(2022년 1월 3주\)](#)

◎ 사회 일반

[국민 59% "문재인 정부 5년차 갈등 심화"... 세대·남녀·지역 갈등 급부상](#)

한국일보_2022.01.21.

[부엌만 '콧'?...코로나가 바꾼 '명절 이혼' 풍경](#)

노컷뉴스_2022.01.24.

[성인 10명 중 3명 평생학습 참여...코로나19로 참여율 급감](#)

중앙일보_2022.01.19.

[코로나 우울, 여성·비정규직에 집중...남성·정규직의 두배](#)

연합뉴스_2022.01.23.

[트렌드 : "등산 줄고, 트레킹 늘어"...야외활동 유형 바뀐다](#)

연합뉴스_2022.01.18.

["코로나 시대 불평등의 팬데믹"...지구촌 소득·소비 양극화 심화](#)

연합뉴스_2022.01.22.

◎ 청년/청소년

[‘사흘=4일?’ 문해력 열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

시사IN_2022.01.21.

[MZ세대 보험 가입은...‘자기주도·합리적 선택’ 중요](#)

매일경제_2022.01.21.

[최악 취업난에도 일자리 11만개 비었다...기이한 일자리 미스매치](#)

중앙일보_2022.01.21.

◎ 환경

[개인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정해주면 기후 위기 막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_2022.01.21.

[2050년 세계 에너지 수요 66%,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

중앙일보_2021.11.30.

[기온 1.5도 상승 못 막으면...‘50년에 한번’ 최악폭염, 8번 온다](#)

중앙일보_2021.08.09.

[대재앙 시계 70년 빨라졌다, 기온 3도 오르면 생길 끔찍한 일](#)

중앙일보_2021.08.01.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음식쓰레기 관련 통계

[음식쓰레기가 틀립정원 퇴비 됐다...굴현동처럼 할 수 있는 일](#)

중앙일보_2022.01.19.

[하루 음식쓰레기 2만 비밀...4분의 1은 먹기도 전에 버려진다](#)

중앙일보_2022.01.17.

[음식 쓰레기, 12년 전 대책이 마지막...정부·지자체 관심이 없다](#)

중앙일보_2022.01.17.

[마켓서 안 팔린 음식, 프랑스선 못 버린다...해외의 음식쓰레기](#)

중앙일보_2022.01.17.

[음식쓰레기로 만든 퇴비·사료, 88% 안 팔려..."공짜로 퍼 준다"](#)

중앙일보_2022.01.18.

◎ 경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천171억달러...역대 최고 기록](#)

연합뉴스_2022.01.20.

[한국 자산세 부담, 4년만에 OECD 11위→2위](#)

조선일보_2022.01.21.

◎ 기독교

[예배당 없는 온라인교회...美 대형교회의 파격](#)

국민일보_2022.01.14.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3억6000만명...기독교 박해국 1위 아프간](#)

국민일보_2022.01.19.

[미국 목회자들 '코시국'에 가장 시급한 목회 과제는](#)

국민일보_2022.01.19.

[보수 교단 예상합동도 목소리 "목회자 이중직 현실적 해법 급하다"](#)

국민일보_2022.01.21.

[미주 한인교회, 코로나 2년 동안 1,022곳 문 닫아](#)

아이굿뉴스_2022.01.19.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이름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빛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JC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섭,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전병철, 사랑감리교회(담임목사 이일로 목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해외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